

미륵대원 석굴의 고찰 (彌勒大院 石窟의 考察)

金 吉 雄
<東國大博物館 研究員>

目 次

- | | |
|-----------|-------------|
| 1. 머리말 | 4. 石窟彫刻의 形式 |
| 2. 築造의 背景 | 5. 築造編年 |
| 3. 石窟構造 | 6. 맺는말 |

1. 머리말

미륵대원(彌勒大院)은 충북 증원군 상모면 미륵리(忠北 中原郡 上茅面 彌勒里)에 위치하는 고려초(高麗初)의 석굴사원(石窟寺院)으로서 우리나라 석굴사원(石窟寺院)의 계보(系譜)를 잇는 중요한 유적이다. 특히 그 곳에 본존불(本尊佛)로 모셔진 석불입상(石佛立像)은 주위 부조상(浮彫像)과 더불어 고려초(高麗初) 조각연구(彫刻研究)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석굴(石窟)은 거석(巨石)으로 쌓아올려 전방후방(前方後方)의 평면(平面)을 이루고 있으며 지붕은 목조가구(木造架構)로서 토함산(吐含山) 석굴암(石窟庵)의 전방후원(前方後圓)과 도움(Doum)형식의 지붕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본존(本尊)인 석불입상(石佛立像)은 4매석(枚石)으로 이루어졌는데 총고(總高)가 9.8m에 달하는 거불(巨佛)이다. 이는 관촉사석조관음보살입상(灌燭寺石造觀音菩薩立像)이나 대조사석조보살입상(大鳥寺石造菩薩立像)등과 함께 고려초신흥국가(高麗初新興國家)의 힘에 의해 조성(造成)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벽면(壁面)에는 여래좌상(如來坐像), 이불(二佛), 삼불병좌상(三佛並坐像) 등 많은 부조상(浮彫像)들로 장엄(莊嚴)되었다. 이들 유적(遺蹟), 유물(遺物)은 일찍부터 학계(學界)의 관심을 끌어 3차(次)에 걸쳐 청주대학교(淸州大學校)(1978)와 이화여자대학교(梨花女子大學校)(1979)의 발굴조사(發掘調査)와 증원군(中原郡)에서 실측(實測)조사(調査)(1983)를 실시하므로써 그 이해의 폭을 넓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존하는 유적, 유물과 이를 조성(造成)하게 된 사상적(思想的), 사회적(社會的) 여건, 그리고 사지(寺址)의 점정위치(占定位置)를 근본으로 하여 첫째로 이 석굴사원(石窟寺院)을 축조(築造)하게 된 배경(背景)을 살펴보고, 둘째로 석굴구조(石窟構造)를 평면(平面)과 입면(立面)으로 고찰(考察)한 후, 셋째로 본존불(本尊佛)과 주위 조상(造像)들의 형식적(形式的) 특징, 축조(築造)의 시대적(時代的) 편년(編年)등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이 석굴사원(石窟寺院)의 불교미술사적(佛敎美術史的) 의의(意義)와 중요성

(重要性)을 부각(浮刻)시킴과 아울러 한국석굴사원연구(韓國石窟寺院研究)에 다소나마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축조(築造)의 배경(背景)

중원지방(中原地方)은 한반도(韓半島)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삼국시대(三國時代)로부터 군사(軍事)·산업(產業)·문화(文化)의 요지(要地)이다. 원래는 고구려(高句麗)의 국원성(國原城)으로서¹⁾ 고구려(高句麗)의 남하정책(南下政策)과 신라(新羅)의 북진정책(北進政策)의 진진기지(前進基地)이며 삼국세력(三國勢力)의 각축장(角逐場)으로 역대제왕(歷代帝王)들의 관심이 지대(至大)한 지역이다.

신라(新羅) 탈해왕(脫解王)은 5년(61)에 백제(百濟)의 탁지(拓地) 낭자곡성(娘子谷城)에²⁾ 이르렀으며, 동왕(同王) 7년(63)에는 백제(百濟) 온조왕(溫祚王)이 이 성(城)을 침입(侵入)하였다. 또한 신라(新羅) 진흥왕(眞興王)은 12년(551)에 이 성(城)을 순수(巡狩)하고 18년(557)에 국원(國原)에 소경(小京)을 설치하고³⁾ 그 다음해에 귀척자제(貴戚子弟)와 육부(六部)의 호민(豪民)을 이주(移住)시키고⁴⁾ 26년(565)에 아춘부(阿春賦)에게 명하여 국원(國原)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려태조(高麗太祖) 및 목종(穆宗)도 친히 중원(中原)에 행차(幸次)한 기록이⁵⁾ 있고 고종(高宗)때 몽고군(蒙古軍)이 침입하였을 당시 그 장수(將帥) 차라대(車羅大)가 충주산성(忠州山城)을 공격하였고 조선(朝鮮) 선조(宣祖) 25년(1597) 신립장군(申砮將軍)이 조령(鳥嶺)을 넘어 충주(忠州)로 침입하는 왜군(倭軍)을 맞아 싸웠던⁶⁾ 격전지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옛부터 충주(忠州)는 군사적(軍事的) 요충지(要衝地)로 중요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곳 형승(形勝)은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말하듯 「남북지충수륙지회(南北之衝水陸之會)」로서 수로(水路)로는 한강(漢江)을 관통하여 선군(船軍)이 상류(上流)에서는 강원도(江原道) 영월(寧越)에 이르고 하류(下流)에서는 경기도(京畿道)와 서울로 통하며, 육로(陸路)로는 영남지방(嶺南地方)으로 통하고 있어 양대(兩大) 교통로로서 조령(鳥嶺)과 죽령(竹嶺)으로 연결되고 있다. 예술면(藝術面)에 있어서도 신라(新羅) 진흥왕(眞興王) 12년에 낭성(娘城)을 순수(巡狩)하고 우륵(于勒)에게 명하여 금악(琴樂)을 만들어 그 제자(弟子) 니문(尼文)에게 연주토록 하였고⁷⁾ 문장(文章)에 뛰어난 강수(强首)도 이 곳 사람으로 일찌기 예술(藝術)·학문(學問)의 중심지였다고 생각된다.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이 후삼국(後三國)의 혼란을 수습하고(918) 통일왕조(統一王朝)를 세웠으나 지방의 성주(城主)들은 여전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어 혼란이 계속되었다.⁸⁾ 따라서 왕건(王建)은 사회의 안정과 왕실의 세력을 확고히 하고자 이들과 타협과 연합을 시도하여 충주(忠州)의 유씨(劉氏), 광주(廣州)의 왕씨(王氏)등 전

1) 『高麗史』第五志 卷第十, 地理 一, p.331. 「本高句麗國原城……別號大原」

2) ① 『신증동국여지승람』 2. 忠州牧, 沿革, p.444. 본래는 任那國이었는데 百濟의 영토가 되어서 娘子谷城이라 하였다. 또는 未己省이라고도 한다. ② 『大東地志』 卷六, 忠州, 城地, p.207. 옛부터 長城이라 하였으나 이는 娘子城의 訛傳이며 新羅 文武王 十三年 주위 9592步를 수축하였다. 남북 두 곳에 門樓가 있었다.

3) 『三國史記』 卷 第四, 新羅本紀 第四, 眞興王 十八年, p.38.

4) 앞 책, 眞興王 十九年, p.38. 「春二月 徙貴戚子弟及六部豪民 以實國原」

5) 『大東地志』 忠州 典故條, p.208. 「高麗太祖十一年幸中原 穆宗四年幸中原……」

6) 앞 책, p.208. 「宣祖二十五年四月都巡邊使申砮到忠州次丹月驛倭已踰鳥嶺分路直入忠州……」

7) 앞 책, p.208. 「眞興王十二年王巡狩次娘城召見于勒令製琴樂及其弟子尼文于河臨宮奏樂」

8)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朝閣, 1983.1), p.126.

국 20여 호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었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왕씨(王氏)의 성(姓)을 주어 의제 가족적(擬制家族的)인 관계를 가지므로써 그의 연합시도를 굳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충주(忠州)의 유씨(劉氏)나 광주(廣州)의 왕씨(王氏)가 각각 태조비(太祖妃)를 낼만큼 막강한 실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그들의 연고지인 충주(忠州) 미륵리(彌勒里) 석굴사원(石窟寺院)과 광주(廣州) 하사창리(下司倉里)에 고려초(高麗初) 창건(創建)으로 생각되는 대가람(大伽藍)을 일으켰던 유지(遺址)가 남아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태조(太祖) 왕건(王建)이 적극적인 배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광종(光宗)은 태조(太祖)의 三男으로서 처음에는 유교적 정치이념으로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말년에는 개혁정치에 반감을 산 구정치세력들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불교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귀법사(歸法寺)를 창건하고 균여(均如)·탄문(坦文)등의 승려를 거주케 하여 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을 뿐만아니라⁹⁾ 그의 모(母)가 충주유씨신명태후(忠州劉氏劉氏神明太后)¹⁰⁾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광종(光宗) 때 미륵리(彌勒里) 석굴사원(石窟寺院)이 창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절의 창건은 미륵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3차에 걸친 발굴조사 때 「미륵당(彌勒堂)」, 「미륵당초(彌勒堂草)」 「원주(院主)」라는 명문와(銘文瓦)가 출토되었을 뿐만아니라 이 곳의 지명이 지금도 미륵리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명(寺名)이 미륵대원(彌勒大院)이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미륵삼부경(彌勒三部經)을 근거로 한 미륵신앙은 유토피아적 이상을 가진 신앙이다¹¹⁾. 즉 미륵은 전생(前生)에 파라날국(波羅捺國)의 거의 큰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나¹²⁾ 석가세존(釋迦世尊) 다음으로 두솔천(兜率天)에 하생(下生)하여 용화수(龍華樹) 밑에서 성도(成道)한 후 삼회(三會)의 설법을 설하므로 아미타신앙(阿彌陀信仰)과 함께 부토사상(浮土思想)을 나타내는 신앙으로 먼 훗날에 이 세상에 나타나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악사(樂土)로 만들고 석가불(釋迦佛)이 미처 제도(濟度)하지 못한 중생(衆生)들을 모두 제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의 말법사상(末法思想)에 의하면 그 시대에는 교(敎)만 있고 수행(修行)과 증집(證集)이 없어 인심은 악화되고 악사(惡事)만이 있을 뿐인데, 이 때 미륵이 하생(下生)하여 악사(樂土)를 건설한다는¹³⁾ 바와같이 미륵신앙은 현실세계의 고난을 극복하여 이상세계의 건설을 바라므로써 현실이 어두울수록 열렬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앙적 배경은 혁명의 정신적 배경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 역사적(歷史的) 사실은 궁예(弓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나는 미륵불(彌勒佛)」이라 하여 머리에 금정(金幘)을 쓰고 몸에는 방포(方袍)(승복)를 입고 경문(經文) 20여권을 자술(自述)하였다. 그리고 때로는 정좌(正坐)하여 강설(講說)도 하였다.¹⁴⁾ 비록 그의 강설이 당시의 승(僧) 석청(釋聽)이 말하듯 모두 사설(邪說)이고 괴담(怪談)이었다고 하더라도 한때 못사람의 열렬한 관심을 끌게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미륵신앙이 지니는

9) 金龍善, 「光宗의 改革과 歸法寺」, 『高麗 光宗研究』, (一湖閣, 1981). p.106, 註 35參照.

10) 『高麗史』, 앞 책, 後妃 一, 神明太后劉氏條, p.88. 「神明順成王太后劉氏 忠州人 贈太師內史令競達之女生太子 泰·定宗·光宗·文元大王貞·證通國師·樂浪·興芳二公主」

11) ①吳亨根, 「彌勒思想」 『佛教學報』 二十一輯, (東國大佛敎文化研究院, 1984.10), p.137.

②金三龍, 『韓國彌勒思想의 研究』 (同和出版社, 1984.9), p.42.

③安啓賢, 『韓國佛敎思想史研究』, (東國大出版部, 1983.6), p.180.

12) 『大正新修大藏經』 第十四卷, 經集部, 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大正一切經刊行會, 1925.1), p.419 「彌勒先於波羅捺國却波利村波婆利大婆羅門家生……」

13) 金三龍, 앞 책, p.155. 佛敎의 末法思想의 대두는 釋迦入滅이 B.C. 949年이라면 A.D. 1052年(高麗文宗6年)부터가 末法이 初해가 된다고 보고 있다.

14) 『三國史記』 卷 第五十, 列傳 第十, 弓裔條. 「善宗自稱彌勒佛 頭載金幘 身被方袍 以長子爲青光菩薩 季子爲神光菩薩……又自述經二十餘卷 其言妖 皆不經之事 時或正坐講說 僧釋聽謂曰 皆邪說怪談 不可以訓善宗聞之怒 鐵椎打殺之」

의의는 크다 하겠다.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은 궁예(弓裔)의 부장(部長)으로서 그에게 사상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태조(太祖)가 된 후 그가 발표한 훈요십조(訓要十條) 가운데 「아국가대업 필자제불호위지력 고창선교사원(我國家大業 必資諸佛護衛之力 故創禪敎寺院)……」이라 말하고 있는 사실과 또 실제로 개국 후에 도역내(都域內)에 법왕사(法王寺), 왕륜사(王輪寺)를 비롯한 십대사찰(十代寺刹)을 일으키고 지방(地方)에도 연산(連山)의 개태사(開泰寺) 등 여러 사찰(寺刹)을 창건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개태사는 통일고려제국(統一高麗帝國)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태조(太祖)가 심혈을 기울려 창건(創建)하였는데¹⁵⁾ 이는 후백제(後百濟) 고토(故土)의 민심(民心)을 수습하고 이 지역 민심(民心)의 동향을 감시하고자 하는 뜻에서 세워진 것으로 생각된다. 왕건(王建)은 궁예(弓裔)와는 달리 친신라정책(親新羅政策)을 썼으나 군사적인 대신라작전(對新羅作戰)을 소홀히 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는 금역(金域) 북(北)쪽 50리(里)의 지점에 일어난(昵於鎭)(신광진(神光鎭))을 설치하여 고려(高麗)의 군사를 주둔케 하였다.¹⁶⁾ 이 같이 미륵리석굴사원(彌勒里石窟寺院)의 축조배경에도 신라인(新羅人)들의 민심(民心)과 동향을 감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륵리 석굴사원은 지리적 요건으로 보아 군사, 경제, 문화의 요지(要地)이며 정치, 사회적(社會的)으로는 충주유씨(忠州劉氏)로 대표되는 지방호족(地方豪族)의 근거지로 중앙(中央)과는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또한 당시의 신앙면을 보더라도 미륵신앙과 연결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3. 석굴구조(石窟構造)

(1) 현상(現狀) 및 구조(構造)

석굴(石窟)(사진-1)은 석조(石造)와 목조가구(木造架構)로 이루어진 반축조굴(半築造窟)이다. 현재는 목조가구의 잔해는 찾아 볼 수 없고 석조유구만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파괴가 심하여 원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구조(構造)를 짐작케 하는 것은 석굴중앙(石窟中央)에 봉안(奉安)된 석불입상(石佛立像)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3면(面)의 벽과 전실유지(前室遺址)의 주초석(柱礎石)과 기단유구 뿐이다.

15) 文明大, 「開泰寺石丈六三尊佛立像의 研究」, 『美術資料』 29號, (國立中央博物館, 1981. 12), p.3.

16) 李基白, 앞 책 p.123.



〈사진 1〉 石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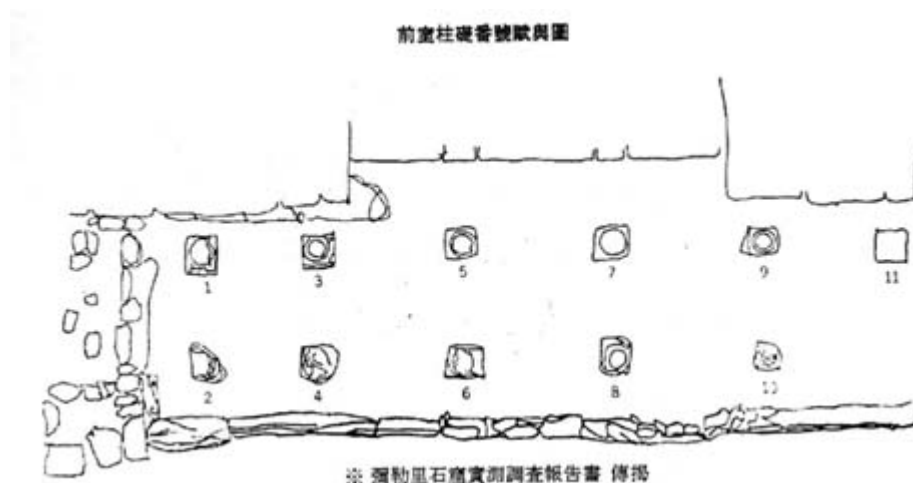
<사진 1> 석굴(石窟)

평면(平面)은 남북 자오선상(子午線上)에 전실(前室)과 주실(主室)로 이루어졌다. 이는 일반 사원들이 보통 남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북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주실(主室)은 남벽이 주벽(主壁)이고 그 좌우(左右)에 각각 동(東), 서벽(西壁)이 이어져 마치 북향한 요형(凹型)의 방형석실(方形石室)을 이루고 있다. 북벽인 석실의 정면은 돌을 쌓지 않고 출입문장치(出入口裝置)를 설치하여 막바로 전실과 이어지게 되었다. 다만 전실과 주실을 경계짓는 것은 그 사이에 놓인 고초(高礎)와 하방석(下枋石)이다. 주실을 이루고 있는 3면(面)의 벽 가운데 동·서벽은 각각 외곽(外廓)을 향하여 직각으로 꺾이어 외벽(外壁)에 이어져 주실의 전단(前端)을 마무리 짓고 주실 각 벽의 적심석(積心石)을 외호(外護)하는 동시에 전실의 내연(후)벽(內緣(後)壁)이 되고 있다. 동외벽은 그 끝이 구릉(丘陵)에서 이어져 끝나며 서외벽은 서단(西端)에서 직각으로 꺾이어 계변(溪邊)을 타고 남진(南進)하는 용벽(甕壁)에 이어지고 있다.

주실(主室)의 크기는 동서폭이 9.8m이고 남북의 길이가 10.75m로서 동, 서, 남 3면(面)을 둘러싼 벽에 의해 방곽(方廓)을 이루고 있다. 동·서외벽을 연결하는 선에서 약간 안쪽으로 놓인 하방석(下枋石)과 고초(高礎)에 의해 마무리 되고 있다. 이 하방석(下枋石)은 고초(高礎)에 의해 어간(御間)과 좌우협간(左右狹間)으로 세등분 되었고 사람의 출입(出入)은 좌우협간(左右狹間)을 이용하였던 것이다. 어간(御間)의 하방석(下枋石) 양 끝에는 남북으로 동일 선상에 구멍 두 개씩이 나란히 파져 있고 동·서협간(東·西狹間) 하방석(下枋石)에는 각각 그 양 끝에 하나씩만 하방폭(下枋幅)의 중심지점(中心地點)에 파져 있다. 어간(御間)에 두 개의 구멍은 무엇을 고정(固定)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는 듯하며 협간(夾間)의 단공(單孔)은 문두지리를 끼우기 위한 화금공(靴金孔)으로 짐작된다.¹⁷⁾ 본존불(本尊佛)의 둘레 네 귀퉁이에 자리잡고 있는 장방형의 판석(板石)은 초반(礎盤) 중앙(中央)에 둥근 용기(隆

17) 韓國文化財研究院編, 『中原郡彌勒里石窟實測調查報告書』, (中原郡, 1979), pp.32-33.

起)가 새겨진 것, 원룡주좌구내(圓隆柱座區內)에 지름 0.27m의 원공(圓孔)이 파여 있는 것, 그 둘레에 연관문(蓮瓣文)이 새겨져 있는 것, 아무런 가공이 없는 밋밋한 판석형(板石形)으로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다. 이들 네 개의 판석(板石)은 주초라는 견해도 있지만 본존불(本尊佛)의 뒤쪽에 놓인 것은 협시불(脇侍佛)의 태좌(台座)일 가능성도 있다.¹⁸⁾ 굴내(窟內)바닥은 방형(方形)의 전석(磚石)을 깔아 정갈하게 하였다. 치석(治石)을 하여 판석면(板石面)을 곱게 다듬었으나 현존 배열된 모습은 고르지 못하고 파손도 심하다.



전실주초번호부여도(前室柱礎番號賦與圖)

※ 미륵리석굴실측조사보고서 전계(彌勒里石窟實測調查報告書 傳揭)

전실(前室)은 11개의 주초(柱礎)(그림-1)가 2열(列)로 줄을 맞추어 놓여 있으며 그 바깥쪽으로 뿔돌같은 돌들이 남북 약 5.3m, 동서 20m에 이르는 장방형의 구획을 이루고 있다. 주초의 배열은 전실의 어간(御間)에 해당하는 4개의 주초에서 (⑤⑥⑦⑧)은 주실의 사천주초석(四天柱礎石)과 남북으로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그리고 동·서벽(東·西壁)의 외벽(外壁)으로 꺾이는 모서리에 조금 비껴서 놓여 있는 초석(③④와 ⑨⑩)의 주간(柱間)은 어간(御間)보다는 조금 좁으며 가장 바깥쪽에 놓인 초석(①②와 ⑪)은 좌우협간(左右狹間)보다 또 약간 좁다. 이점은 전실의 규모를 추정함에 있어서 평면구성상 정면 5칸, 측면 단칸이라 할 때¹⁹⁾ 어간(御間)이 제일 넓고 그 좌우협간(左右狹間)이 그 보다 조금 좁고 좌우퇴간(左右退間)이 가장 좁게 잡히는 상례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서쪽 끝에 보이지 않는 1개의 초석은 본래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초의 형태와 배열된 위치와의 관계이다. 형태상으로는 ①방초원주좌형(方礎圓柱座形) ②고맥이받침동조형(同造形) ③방형초반형(方形礎盤形)의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이 놓인 위치와 형태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른 점이다. 즉 고맥이받침동조형(同造形)은 동쪽끝에서만 두 개의 돌이 남북으로 병열되었을 뿐이며 방형초반형(方形礎盤形)은 서쪽 끝에 한 개가 놓여 있는데

18) 앞 책, pp.31-32에서 주초로 단정하고 있는데 이 주초가 창건당시의 원상을 그대로 지닌 것인지 아니면 후에 보강되면서 본래의 의도를 벗어난 임의의 배치인지는 문제로 남고 있다.

19) 前室의 유구는 第一次發掘 때 전모가 드러나면서 正面 3間, 側面 單間의 규모가 正面 5間, 側面 單間으로 수정되었다. 그런데 『一次發掘報告書』에서도 지적했듯이 석벽에 나타난 낙수흔적을 고려하면 주초의 배열과 형태, 전실규모라는 관계는 더 세밀한 논의가 요청되고 있다.

원래의 위치에서 약간 서쪽으로 벗어나 있다. 나머지는 방초원주좌형(方礎圓柱座形)에 속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두 개(③⑤)는 원좌(圓座)가 초반(礎盤)중심에 놓이지 않고 한쪽으로 물린 듯 한 것은 파손에 의해 왜곡(歪曲)되게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동쪽과 서쪽에 놓인 초석들의 형태가 서로 다르고 또 중심부에 놓인 초석들과 다른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벽면(壁面)의 구성은 원래는 장엄(莊嚴)이 배풀어지게 되었으나 지금은 벽면이 심히 손상(損傷)을 입어 마치 다듬지 않은 자연석을 쌓은 듯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남벽(南壁)은 본존불(本尊佛)의 뒤쪽으로 석굴(石窟)의 주벽이다. 이 벽의 구성은 동서벽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른바 감실부(龕室部)의 구성방법이 뚜렷하게 다르다. 아래쪽 기대석을 3단(段)으로 쌓았는데 1,2단(段)은 거의 같은 높이이고 3단(段)이 조금 높다. 이들 기대석은 옆으로 길게 누운 거대한 모습으로 제1단은 2매(枚), 제2단은 3매(枚), 제3단은 2매(枚)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 석재(石材)는 동·서벽의 적심(積心)과 깊게 맞물려 있어 구조물을 매우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 그 크기도 거대해서 한번의 길이가 드러나 보이는 부분의 크기만 해도 5.76m가 넘고 있다. 기대석 위에는 네모난 방주석(方柱石) 7개가 놓여 있는데 중앙의 방주(方柱)는 남벽의 중심축(中心軸)에 해당하는 중앙부위(中央部位)에 자리잡아 본존불(本尊佛)의 바로 뒤쪽에 해당되는데 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구성이라고 추정된다.²⁰⁾ 방주(方柱) 위에는 중방석(中枋石)이 놓였는데 3매(枚)의 긴돌로 벽의 전장(全長)을 처리하고 있다. 가운데 놓인 돌은 길이가 짧고 좌우에 놓인 돌들은 긴편으로 좌우가 대칭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중방석(中枋石) 위 동서 양끝에는 옆으로 누운듯한 장대석(長台石) 2매(枚)씩이 위 아래로 중첩되어 놓여 있고 그 사이에 키가 낮은 기둥돌이 7개 나란히 빈틈을 주지 않고 이어 놓았다. 7매(枚)의 돌은 높이가 거의 일정하나 폭은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세 번째 돌은 폭이 넓고 배치가 정연치 못한 감을 주고 있다. 이 단주형(短柱形) 돌의 구성에서 눈에 띄는 것은 조각된 존상(尊像)의 모습인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돌에서는 뚜렷이 찾을 수 있으나 다른 돌은 표면이 박락(剝落)이 심하여 그 원상을 밝힐 수 없다. 단주석(短柱石) 위에는 다른 벽들과 마찬가지로 이맛돌이 1단(段) 쌓여 내벽(內壁)을 마무리 짓고 있다. 이 이맛돌 위에는 퇴물려서 석축물(石築物)이 쌓였는데 이는 지붕을 구성하는 목조가구(木造架構)의 유구라 추정된다.

동벽(東壁)은 남벽, 서벽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벽과 외벽이 직각으로 꺾이는 곳이 3단(段)이 아닌 2단(段)으로 처리되었다. 즉 맨아랫돌을 2단(段)높이의 큰 돌 하나로 쌓은 것이다. 이 돌을 외벽쪽으로 크게 맞물려 견고함을 두드러지게 하고 있다. 이 우기석(隅基石) 아래에 지대석의 성격을 띤 받침돌이 놓였는데 전실의 현 지반(地盤)에서 약간 솟아 있으며 치석면(治石面)은 거칠다. 튼튼한 태석(台石) 위에는 5개의 기둥돌(방주석(方柱石))이 놓여 방구(方區)의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 감실부의 맨 앞쪽 끝에는 2개의 돌이 가로누워 우기석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방주석(方柱石)의 역할도 하여 6개의 감실을 이루고 있다. 방주석과 감실부는 중방석(中枋石)으로 마무리짓고 있는데 이 위에 또 감실부라고 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 세 개의 단주(短柱)가 열립(列立)하고 그 사이사이에 단주(短柱)보다 키는 낮으나 옆길이는 긴 횡와석(橫臥石)이 놓이고 그 횡와석 중앙에 다시 조그만 돌이 놓여 단주석의 높이와 같게 하고 이 단주와 단주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 6개가 있다. 감실부 머리에 이맛돌을 놓고 동벽을 마무리 짓고 있다.

서벽(西壁)은 동벽과 비슷하다. 다만 기대석 부분이 3단(段)의 거석으로 이루어지고 동벽

20) 뒤 제4장 석굴조각의 형식적 특징을 논할 때 자세히 설명코자 한다.

에 있는 우기석이 여기에서는 생략되고 있다. 동·서벽의 구성은 본존불(本尊佛)의 중심을 지나는 남북축선(南北軸線)을 기준으로 대칭구성(對稱構成)을 이루고 있다.

(2) 석굴(石窟)의 특징(特徵)

불교사원(佛敎寺院) 즉 가람(伽藍)(Sangh-ar-ama)을 형성하는 기본요소는 예배의 대상을 봉안(奉安)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당탑(堂塔) 등의 신성한 건조물군과 출가수행자(出家修行者)인 승중(僧衆)의 거주처로서 승원(僧院)을 비롯한 그 부속건조물군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²¹⁾ 즉 예배당의 성격을 지닌 「차이티야(Chaitya)」와 승원(僧院)의 성격을 지닌 「비하라(Vihara)」의 이대형식(二大形式)으로 나누는데 석굴사원(石窟寺院)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전형적(典型的)인 형식은 석굴조영(石窟造營)의 기본을 이루기는 하지만 교리(敎理)의 발달, 믿음의 내용변화(內容變化), 암질(岩質)과 같은 자연적인 조건, 석굴조성을 뒷받침하는 배경 등 여러요소가 작용하여 다양한 변화상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석굴 사원의 형식은 이같은 전형형식에 근거를 두면서도 역시 한국적인 수용(受容)의 특색을 보이고 있다. 축조석굴의 조영도 그 한 예라 하겠다. 축조석굴의 전형형식을 대표하는 것은 토함산(吐含山) 석굴암(石窟庵)이다. 전방후원(前方後圓)의 평면 구성은 차이티야의 전형형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미륵리석굴은 축조굴이면서도 천정(天井)을 포함한 상부(上部)는 목조가구(木造架構)에 의한 반축조석굴(半築造石窟)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예는 비록 자연의 암석(岩石)을 그대로 이용한 점이 다르기는 하지만 고신라(古新羅)의 단석산(斷石山) 신선사(神仙寺)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²⁾ 그리고 평면구성(平面構成)은 장방형(長方形)의 전실(前室)과 방형(方形)의 주실(主室)로 전방후원(前方後圓)의 석굴암(石窟庵)과 다르다. 이러한 전방후방(前方後方)의 평면(平面)은 인도석굴(印度石窟)의 경우 콘다네(Kondane) 第2굴(窟)(기원(紀元) 후(後) 1세기초(世紀初))²³⁾ 흰두교사원 셋탄나바살(Sittannavasal) 석굴(石窟)²⁴⁾ 또는 엘로라(Ellora) 第31굴(窟)(8세기(世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도석굴(印度石窟)의 평면구성이 미륵리석굴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오히려 석굴암(石窟庵)이 중국(中國) 용문굴(龍門窟) 제발당(齊拔堂)의 타원형 주실에서 원형(圓形)으로의 착상이라면²⁵⁾ 미륵리석굴(彌勒里石窟)은 석굴암의 원형주실(圓形主室)에서 방형(方形)으로의 착상으로 생각된다. 또한 주실과 전실을 연결하는 간도(間道)(비도(扉道))가 미륵리석굴에서는 생략되고 있으나 주실과 전실을 구할(區割)하는 곳에 마련된 쌍석주(雙石柱)(고초(高礎))는 석굴암의 팔각쌍주(八角雙柱)와 대비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대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할 것이다.²⁶⁾ 주실(主室)의 3면(面)이 석축(石築)벽에 의한 정방형(正方形)의 평면구조를 지닌 것은 석굴암의 주실(主室)이 원형을 이루고 있는 점과 형식상 다르나 중앙에 본존불(本尊佛)이 놓이고 그 뒷벽과 좌우벽(左右壁)에 부조(浮彫)나 감실을 두어 장엄하고 있는 점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특히 본존불(本尊佛) 바로 뒤쪽 주벽(主壁)의 정중앙부(正中央部)의 벽면구성이 그 좌우 구성과完연히

21) 高田修, 「僧院と佛塔」, 『佛敎美術史論考』, (中央公論美術出版, 1969.6), p.64.

22) 黃壽永, 「斷石山神仙寺石窟磨崖像」, 『韓國佛像의 研究』, (三和出版社, 1981.2) p.186.

23) 高田修, 「イトトの石窟寺院」, 『佛敎美術史論考』, (中央公論美術出版, 1969. 6), p.99 및 圖版 參照.

24) 肥塚隆, 「南インドのソドゥー教石窟」, 『佛敎藝術』 93號(毎日新聞社, 1969) p.22 및 圖版 參照

25) 文明大, 「韓國石窟寺院의 研究」, 『歷史學報』 第38輯, (서울大出版部, 1968.8) pp.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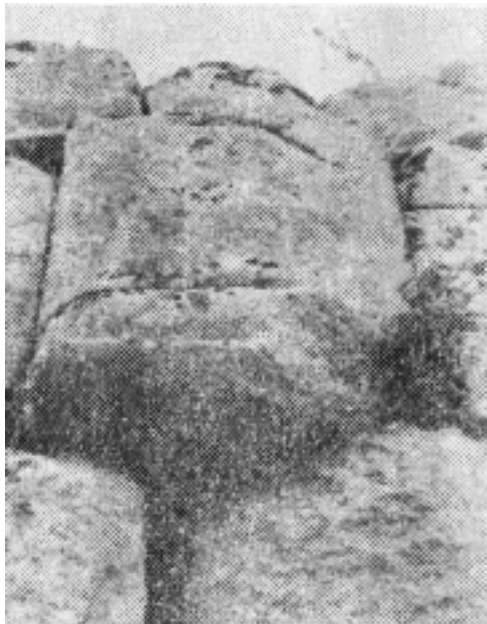
26) 『彌勒里寺址 2次發掘調査報告書』, (淸州大博物館, 1979). p.27에서 시대의 下降과 退化의 傾向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구조적 편위에 따른 形式의 變化를 단순히 退化라고만 볼수는 없을 것이다.

구별되는 것은 석굴암의 본존불(本尊佛) 뒤에 11면관음보살(面觀音菩薩)을 배치한 의도와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진 2〉 本尊佛

<사진 2> 본존불(本尊佛)



〈사진 3〉 如來坐像

<사진 3> 여래좌상(如來坐像)

4. 석굴조각(石窟彫刻)의 형식(形式)

(1) 불상(佛像)의 현상(現狀)

석굴내(石窟內)에는 그 중앙에 우뚝서 있는 거구(巨軀)의 석조여래입상(石造如來立像)과 남벽의 상단(上段) 일부에 잔형(殘形)만은 남기고 있는 비교적 고육조(高肉彫)의 부조상(浮彫像) 그리고 병좌상(並坐像)을 부조(浮彫)한 장방형(長方形) 판석(板石)이 벽면의 방형공간(方形空間)에 남아 있다. 부조상(浮彫像)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남벽의 상단(上段) 일부(一部)에 남아 있는 비교적 고육조(高肉彫)의 부조상(浮彫像)이고 다른 하나는 장방형의 판석(板石)에 부조(浮彫)로 새긴 병좌상(並坐像)인데 이들은 이·삼존상(二·三尊像)으로 나뉘어진다. 이 외에 소형원각상(小形圓刻像)이 감실내에 놓여 있으나 본래의 위치가 아니고 혼동이 된 것 같다.

본존불(本尊佛)(사진-2)은 북쪽을 향하여 우뚝 서있는데 바닥면에서 보개(寶蓋)까지 총높이가 9.8m에 이르는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일매석(一枚石)으로 조성(造成)이 어려웠던지 4매(枚)의 괴석(塊石)을 사용하였다. 원형융기형(圓形隆起形) 태좌(台座) 둘레에는 장대석(長台石)을 다듬어 방추(方樞)를 이룬 받침돌을 놓았다. 불신(佛身)을 이룬 4매(枚)의 괴석(塊石)은 대체로 방형의 돌을 모서리만 둥글게 다듬고 있어 환조(丸彫)라는 느낌보다는 괴량감(塊量感)만을 갖는 정면관(正面觀)의 조각상(彫刻像) 느낌을 갖게 한다. 어깨 너비(2.03m)와 발부분 폭(2.06m)이 거의 같아 굴곡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못하여 마치 장방형의 석주(石柱)를 세운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관심을 끄는 것은 돌의 이은 부분이 조각적으로 매끄럽지 못하고 어색한 점이다. 즉 제3석과 제4석이 이어지는 곳이 제일 어색하여 눈에 띄는데 팔꿈치 아래로 흘러내린 양쪽 허리의 의습선(衣褶線)이 아래쪽으로 급격히 좁아지면서 그 아랫 돌과 이어지는데 그 좌우끝이 매우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 이 점은 법의(法衣)의 주름에서도 착취(着取)된다. 제2석에는 의습선(衣褶線)의 표현이 매우 희미한데 비해 그 아랫돌(제3석)은 비교적 뚜렷하다. 이러한 것은 거석(巨石)을 다루는 솜씨의 미숙(未熟)이나 재료의 제한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



<사진 4> 이존상(二尊像)



<사진 5> 삼존상(三尊像)

남벽 상부에 남아 있는 여래좌상(如來坐像)과 보살상(菩薩像)은 비교적 고육조(高肉彫)로 판석(板石)에 새겨져 있다. 여래좌상(如來坐像)(사진-3)은 화려한 연화좌(蓮華座) 위에 앉아 있는데 상부가 파손(破損)되어 우견편단(右肩偏袒)의 윤곽만을 확인할 수 있다. 보살상(菩薩像)은 상대가 더 나빠 세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왼쪽 무릎을 세우고 오른쪽 무릎은 지면에 대고 약간 몸을 튼 자세를 취하고 있는 듯하다. 병좌상(並坐像)은 이존형식(二尊形式)(사진-4)의 판석(板石)이 5매(枚) 삼존형식(三尊形式)(사진-5)의 판석(板石)이 2매(枚)이며 두부(頭部)만 남아 있는 석편(石片)이 1개이다. 이들 병좌상(並坐像)은 판석(板石)에 위아래로 중첩되어 새겨져 있는데 방향에 가까운 얼굴 모습에 눈이 비교적 크게 표현되었다. 어깨는 넓으나 목이 받으며 허리는 약간 구부러진 듯하다. 머리를 체발(剃髮)한 것으로 보아 나한상(羅漢像)이 아닌가 추측된다. 소형(小形) 원각보살상(圓刻菩薩像)은 화상(火傷)을 입어 세부를 파악할 수 없으나 대체로 보발(寶髮)이 어깨에 걸쳐 있고 드러난 가슴 밑 상의(裳衣)의 띠매듭이 보이고 결가부좌(結跏趺坐)의 자세에 목에는 2조(條)의 경식(頸飾)이 표현되었고 수인(手印)은 촉지인(觸地印)을 한 듯한 모습이다. 이 밖에 주목을 끄는 것은 주실 남벽에 있는 이른바 감실부의 가장 동쪽에 있는 판석(板石)의 상부에 화불(化佛)로 생각되는 부조(浮彫)이다. 한쪽이 긴 꼬리 모양의 주름을 타고 앉아 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판석면(板石面)이 고르지 못하여 식별이 곤란하다. 이 화불(化佛)은 벽면구성에 새로운 관심을 주는 중요한 단서(端緒)라 생각된다.

(2) 형식적 특징(形式的 特徵)

형식적(形式的) 특징은 본존불(本尊佛)을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본존불(本尊佛)을 제외한 다른 상(像)들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세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본존불(本尊佛)은 환조(丸彫)라기 보다는 정면관(正面觀) 위주의 장방형 석주(石柱)를 세워 놓은 느낌이다. 이 같은 석주형(石柱形) 거상(巨像)은 먼저 관촉사석조관음보살입상(灌燭

寺石造觀音菩薩立像)이나 대조사석조보살입상(大鳥寺石造菩薩立像) 등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머리 위에는 팔각형(八角形)의 보개(寶蓋)를 쓰고 있는데 노천불(露天佛)의 경우 보개를 쓴 예는 잘 보이지 않는다. 머리는 라발(螺髮)이고 육계(六髻)는 낮게 조성되었는데 보개를 위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네모진 얼굴은 비교적 편편한데 이는 당당한 볼륨을 갖고 근엄한 표정의 통일명(統一明) 조각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시대의 하강(下降)을 나타내고 있다. 반듯한 이마 아래 반월형(半月形) 눈썹과 세장(細長)한 눈, 콧마루가 낮고 조금은 넓적해진 코, 비교적 짧아진 인중, 두터우나 작아진 입, 짧은 턱 등 고려시대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얼굴의 세부표현은 통일신라말(統一新羅末)부터 나타난 지방양식(地方樣式)을²⁷⁾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조금은 시원하게 긴목에는 삼도(三道)가 있고 어깨는 움추러들었다. 이 같은 모습은 도식화되어 가는 고려전기 불상형식을 나타내어 경기도(京畿道) 광주출토(廣州出土) 철불좌상(鐵佛坐像)이나 충남서산(忠南瑞山) 보원사철불좌상(普願寺鐵佛坐像)으로 전하여 졌던 상(像)(현국립박물관 소장(現國立博物館 所藏))은 근엄한 얼굴, 당당한 어깨, 떡벌어진 가슴과 같이 세련된 솜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두텁게 처리하여 신체의 굴곡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법의(法衣)자락은 상단(上段)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어 얼른 알아보기 힘들으나 하단(下段)에서는 비교적 뚜렷하다. 의습선(衣褶線)은 하복부(下腹部)에서 U자형(字型)으로 일단 멈었다가 다시 좌우로 향하여 흘러내리고 있고 무릎부분에서 일부가 좌우측으로 돌아가나 뒷면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 발등까지 내려와 좌우로 퍼지는 옷주름 사이에 두발이 나란히 앞쪽을 향하고 있는데 두발 사이가 좁아 큰 몸체를 받들고 있기에는 좀 불안한 느낌을 주고 있다. 두손은 가슴부분에서 모아져 오른 손은 손가락을 세운 채 안으로 살짝 꼬부려 손등이 바깥쪽으로 보이게 하고 그 손끝은 상단석(上段石)을 넘어 솟아 올랐다. 왼팔은 팔굽이 안으로 굽었고 손바닥은 위로하여 가볍게 지물(持物)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연봉 같다. 이 상(像)의 시원(始源)은 아마도 신라통일기(新羅統一期) 조성(造成)인 거창양평동석조여래입상(居昌陽平洞石造如來立像)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양평동상(陽平洞像)은 신체가 장대하고 늘씬하며 세련된 모습이지만 지나치게 장대하고 다소의 도식화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경향을 나타낸다. 이 보다 더 진전된 상(像)으로서는 예천동본동석조여래입상(醴泉東本洞石造如來立像)을 들 수 있는데 앞뒤를 높은 듯한 편편한 신체와 사각형 얼굴은 다소 둔중한 모습을 보여주며 흘러내린 옷자락은 형태묘사에 치중하여 형식적이고 입체감이 사라지고 있다. 고려(高麗)에 들어와서는 통일신라(統一新羅)의 우수한 불상양식(佛像樣式)을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고 쇠퇴일로로 걸어 정신과 기술이 모두 해이해져 박력이나 정신적 내재성이 희박하고 수법(手法) 또한 형식화의 경향을 띠게 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²⁸⁾ 이는 중국(中國) 당(唐) 조각의 영향권에 있던 통일신라(統一新羅) 조각과는 달리 외래양식의 수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여 도착적인 조각양식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고려전기에는 장대한 마애상(磨崖像)이나 석상(石像)들이 조성(造成)된 것이 특색인데 이는 새로운 국가건설로 인한 신흥의 기운이 팽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이 고려시대에 새로운 형식으로 부각되는 상(像) 중 원각상(圓刻像)으로 가장 초기에 해당하는 것은 운산개태사(運山開泰寺) 석삼존(石三尊) 중 본존(本尊)과 관촉사석조보살입상(灌燭寺石造菩薩立像)이라 생각된다. 개태사석불(開泰寺石佛)은 고려 태조 19년(936)에 이 절이 창건될 당시 조성이라 생각되는 데²⁹⁾ 둥글고 편편한 얼굴은 이마가 유난히 넓고 양손이 신체에 비해 상당히 크다. 법의(法

27) 崔聖銀, 「溟州地方의 高麗時代 石造菩薩像에 대한 研究」, 『佛敎美術』 5輯, (東大博物館, 1980), p.68.

28) 秦弘燮, 『韓國의 佛像』, (一志社, 1980), p.287.

衣)는 무겁고 두텁게 표현하였고 다리의 군의(裙衣)는 간단한 종선(縱線)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비례감의 상실과 도식화의 경향을 띠고 있다. 관촉사석조보살입상(灌燭寺石造菩薩立像)은 크기의 장대성, 얼굴과 손이 유난히 커지는 비례감 부족 의습선(衣褶線)이나 영락(瓔珞)장식 등이 과장되는 상(像)으로 더욱 비만하여 졌는데 이는 신체의 장중함에 치중하여 위엄을 강조한데서 오는 필연적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후에 나타나는 상(像)들이 천안삼태리마애불입상(天安三台里磨崖佛立像), 미륵리석불입상(彌勒里石佛立像), 안동니천동마애불입상(安東泥川洞磨崖佛立像), 과주용미리마애불입상(坡州龍尾里磨崖佛立像), 대조사석조미륵보살입상(大鳥寺石造彌勒菩薩立像) 등으로 그 맥락이 이어 진다고 생각된다.

천안삼태리(天安三台里) 상(像)은 눈썹이 반월형(半月形)으로 두드러지고 눈은 반개(半開)하였다. 눈등은 우뚝하고 입은 일자(一字)로 다물고 풍만하고 편편한 얼굴에는 위엄이 있어 보인다. 왼손은 가슴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오른손은 가슴까지 올려 내장(內掌)하였다. 법의(法衣)는 양소매에서 수직으로 아래로 흐르고 가슴에서 아래로 9조의 평행원호(平行圓弧)를 각출(刻出)하였다. 따라서 이 상(像)은 마애상(磨崖像)이기는 하지만 각부의 정제(整齊)된 모습과 입체감이 뚜렷하여 통일신라 불상양식을 계승한 여대(麗代)의 수작(秀作)이라 생각된다.³⁰⁾ 이 외의 상(像)들은 대부분 넘적한 방형의 얼굴, 긴 눈, 넘적하고 큰 코, 큰 입, 방형관(方形冠) 등 서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대조사상(大鳥寺像)은 관촉사상(灌燭寺像)에 비해 눈·코·입 등이 신체에 비해 작아지고 턱이 처리에서 원형감을 상실하고 있으며 의습선(衣褶線)도 더욱 도식화의 경향을 띠고 있어 시대의 하강을 엿볼 수 있다.

미륵리석불(彌勒里石佛)은 이 들 상(像)과 조형적(造形的) 수법(手法)을 달리 하고 있다. 이 상(像)들이 방형관(方形冠)에 비해 팔각(八角)의 보개(寶蓋)를 쓰고 머리는 나발(螺髮)이며 얼굴은 타원형으로 원만하다. 눈썹, 눈, 코 입 등이 작으면서 얼굴에 잘 조화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상(像)보다는 광주악사곡마애여래좌상(廣州樂師谷磨崖如來坐像)이나 이천장호원읍미륵불입상(利川長湖院邑彌勒佛立像) 등에서 그 친연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장호원읍상(長湖院邑像)은 팔각(八角)의 보개(寶蓋), 편편한 타원형의 얼굴, 상체와 하체의 폭이 거의 같아 장방형 석주(石柱)를 세운 듯한 모습에서 친연성이 많다 하겠다. 따라서 미륵리석불(彌勒里石佛)은 관촉사불(灌燭寺佛)을 전후하여 대조사(大鳥寺), 안동니천동(安東泥川洞), 과주용미리상(坡州龍尾里像)보다는 앞선다고 생각된다.

5. 축조편년(築造編年)

이 유적에 대한 관계기록이 결핍으로 정확한 축조편년을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현존하는 유구, 유물 및 발굴을 통해서 수습된 자료로서 추정해볼 뿐이다. 지금까지 미륵리석굴사원에 대한 편년 문제를 언급한 제설(諸說)을 정리하면

첫째 황수영박사(黃壽永博士)의 설(說)로 「전설은 믿을 수 없으나 이 불상(佛像)을 보호하는 웅장한 석굴이며 대단한 거구(巨軀)로 보아 새로 일어난 국력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다」³¹⁾는 고려 초기 설이고

둘째 문명대학교(文明大學校)의 설(說)로 「신라(新羅)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여초(麗初)

29) 文明大, 「開泰寺石丈六三尊佛立像의 研究」 앞 책, p.1.

30) 李殷昌, 「天安台里寺址의 磨崖佛立像」, 『考古美術』 7卷 12號, (韓國美術史學會, 1966.12), p.260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31) 『文化財大觀』 寶物篇, (文化財管理局, 1969), 解說 參照.

의 조영으로 보이는 괴산(槐山) 미륵리석굴(彌勒里石窟)은 석굴암(石窟庵)이 변화되어 나타난 가장 명확하고 웅대(雄大)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유명한 예이다」라고³²⁾ 하여 역시 고려 초기로 말하고 있고

셋째 진홍섭박사(秦弘燮博士)의 설(說)로 「석굴이 축조에 비해 불상의 표현은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어깨의 폭이나 하체의 폭이 같음은 안국사석불(安國寺石佛)과 상통한다. 석실을 축조한 의기와 불상을 조각한 역량과는 합치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조성은 11세기경으로 추정된다」³³⁾고 하여 고려전기설을 말하고 있고

넷째 이원근교수(李元根教授)의 설(說)로 「고려초(高麗初)의 이 미륵상과 사지(寺址)는 10세기(世紀)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³⁴⁾하여 10세기설을 말하고 있고

다섯째 신영훈(申榮勳)씨(氏)의 설(說)로 「여러가지 여건에서 미륵대원(彌勒大院)은 왕건(王建) 태조(太祖)의 중앙탑조성설(中央塔造成說)이나 왕궁탑조성설(王宮塔造成說) 등과 함께 경영하였던 것이라 추정하여 그 조성시기를 901~937년 사이로 보고자 한다」³⁵⁾며 구체적 연대를 제시하고 있고

여섯째 실측조사보고서(實測調查報告書)를 집필한 한국 문화재연구원의 견해로 「궁예(弓裔)나 왕건(王建)은 지름재에 군사시설과 더불어 비보(裨補) 또는 원찰(願刹)이나 수륙도장(水陸道場)으로 사원(寺院)을 경영하였다. 이것이 오늘날의 미륵리석굴사원(彌勒里石窟寺院)이다. 황수영박사(黃壽永博士)의 신흥국가적(新興國家的) 조영물(造營物)이라는 판단과도 일치한다」³⁶⁾고 하여 고려초기설을 지지하고 있고

일곱째 김영진교수(金榮振教授)의 설(說)로 「이러한 시대의 추정은 사지(寺址)에서 출토(出土)된 와당(瓦當)을 보아도 타당하게 느껴진다. ……석불(石佛)이 조성시키는 석굴화재(石窟火災) 뒤의 후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⁷⁾라고 진박사(秦博士)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이상의 제설(諸說)을 요약하면 석굴축조와 석불조성을 같은 고려초기로 보는 견해와 각각 다른 견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석굴(石窟)이나 석불(石佛)에서 거석(巨石)을 다룬 솜씨가 서로 같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거석(巨石)으로 대규모 사원(寺院)을 창건할 때에는 개인의 원(願)보다 상당한 배후세력이 있었을 것으로 고려초 충주유씨(忠州劉氏)의 세력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세력이 지원이 있었다면 일시에 이만한 석상(石像)을 조성하였을 것이다. 만일 화재(火災)뒤에 조성이라면 발굴 때 당초상(當初像)의 잔해가 있었을 것이며 또한 폐허된 상태에서 이만한 상(像)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석굴(石窟)에 비해 석불(石佛)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반축조굴(半築造窟)(현재 석축 높이가 6.36m)로서 지붕이 목조가구(木造架構)로 2층누각식으로 된 것을 생각하면 그리 큰 상은 아닐 것이다. 또한 기단이나 그 곳의 연화문(蓮華文), 석불(石佛)의 조각수법 등을 같은 시기를 전후하여 조성된 타례(他例)와 비교해 보면 이 석불(石佛)도 고려초의 조성으로 생각된다. 다만 석불(石佛)이 어색한 부분은 화상(火傷)을 입은 뒤에 약간의 개수(改修)가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6. 맺음말

32) 文明大, 『韓國石窟寺院의 研究』, 앞 책, p.159.

33) 秦弘燮 『韓國의 佛像』, 앞 책, pp.306-307.

34) 『彌勒里寺址發掘調查報告書』, (淸州大博物館, 1978). p.73.

35) 申榮勳, 「彌勒大院의 研究」, 『考古美術』 146, 147 合輯, (韓國美術史學會, 1980.8), p.90.

36) 中原彌勒里石窟實測調查報告書, 앞 책, p.157.

37) 彌勒里寺址 2次發掘調查報告書, 앞 책, pp.51-52.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미륵리석굴사원(彌勒里石窟寺院)은 직접적인 관계자료의 결핍, 현존 유물의 교란과 훼손 그리고 목조가구(木造架構)인 지붕부분이 전실(全失)등으로 보다 구체적인 연구는 못하였으나 3차(次)에 걸친 발굴조사와 본인의 연구로서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생각한다.

이 석굴은 토함산(吐含山) 석굴암(石窟庵)과 평면구성이나 축조술에 차이는 있으나 벽면에 많은 장엄이나 주실(主室)과 전실(前室) 사이에 석주(石柱)를 세우는 등 공통점도 있다. 따라서 이 석굴은 석굴암의 계보(系譜)를 잇는 마지막 축조굴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본존불(本尊佛)은 빛은 듯한 얼굴, 짧은 상체에 비해 장대한 하체, 괴체적(塊體的) 조각수법 등 도식화의 경향이 짙어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전형양식(典型樣式)을 계승한 광주출토철불좌상(廣州出土鐵佛坐像)에서 보이는 전통양식과는 다른 흐름으로 관촉사상(灌燭寺像) 등과 함께 고려초기 불상양식을 대표하는 좋은 예라 하겠다. 또한 석굴이 축조된 배경과 축조술(築造術) 그리고 본존불(本尊佛)의 조성편년 등을 고려할 때 이 석굴은 고려초 늦어도 광종(光宗) 때 까지는 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이 석굴사원을 포함한 이 지역의 문화가 상호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앞으로 이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요망(要望)된다.